



성령 훼방 죄



ICE BREAK TIME



마음열기 [일주일의 휴일이 주어진다면?]

당신에게 한주간의 휴가가 갑자기 주어진다면 당신은 무엇을 하고 싶은지 함께 나누어 보십시오.

나는 _____ 을(를) 할 것이다.

예) 오로지 쉬, 읽고 싶은 책읽기, 여행, 영화관람 등

▶ 찬양: 411(아 내 맘속에)

▶ 기도: 구역원 중

▶ 성경봉독: 마 12:31-32

말씀

31.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게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32.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마 12:31-32)

본문배경

주님께서 갈릴리 지방 한 지역에서 계실 때 누군가가 귀신들려 눈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왔습니다. 주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시사 고쳐주셨습니다. 이 기적을 보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는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하는 것이라고 명백히 주님의 역사를 모욕하고 비난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그들의 말을 들으시고 사탄의 나라의 강력한 통일성과 조직성을 이야기 하시고 이어서 이 세상이나 오는 세상에서 용서받지 못할 죄 곧 성령 훼방 죄를 언급하십니다.

오늘은 이 용서받지 못할 죄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본론

1. 그렇다면 용서받지 못하는 죄, 성령 훼방 죄란 무엇입니까?

먼저 용서 받지 못할 죄에 대한 성구들을 더 찾아봅시다.

(요일 5:16)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히 6:4-6)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 놓고 욕되게 함이라

(히 10:26)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박형룡 박사는 성경전반의 용서받지 못하는 죄에 대해서 개혁주의자들의 의견을 다음과 같이 정리합니다. 이 죄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에 관한 성령의 증언을 증거와 확신에 반대하여 의식적, 악의적, 고의적으로 배척하고 악평하며 증오와 적개를 가지고 그것을 악마의 작업에 돌림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 죄는 진리를 의심하거나 단순히 부인함으로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 심사의 확신과 양심의 조명과 심정의 판단에 거슬러 행하는 진리의 반항으로 되는 것이다. 이 죄를 범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역으로 명백히 인정된 바를 고의적, 악의적, 의식적으로 사단의 감화력과 공작에 돌리는 것이다.¹⁾

2. 성령 훼방 죄의 세 가지의 특징

이러한 성령 훼방 죄는 세 가지의 특징을 갖습니다.

- 1) 첫째로 그들은 지금 일어나는 역사가 성령의 역사를 압니다. 이에 대해서 히브리서 6장 4절 이하에는 “비침을 받는 자”, “맛본 자”등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1) (박형룡, 박형룡저작전집 : 교의신학/인죄론, 281-282)

개혁파 정통주의 시대 학자인 마레시우스는 이에 관하여 “성령의 외적, 내적 조명을 통한 신적 진리와 의지의 충분한 지식”이 있으나 의도적 반항이라고 정의합니다.²⁾

2) 둘째로, 알게 된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악평을 합니다. 박형룡은 다음과 같이 정리합니다. “이 죄를 범한 자들에게서는 하나님에 대한 단호한 증오, 그와 그의 일에 대한 멸시적 태도, 거룩한 사물에 대한 비소와 훼방, 자기의 영혼과 내생에 대한 극도의 무관심이 발견될 것이다”³⁾

3) 셋째로, 회개를 완전히 거부합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공로와 성령의 능력을 최종적으로 배척”⁴⁾하며, 그들의 심령은 “최후까지 계속되는 사악함과 마음의 강박”으로 공고합니다.⁵⁾

3. 그러면 일반적인 죄와 성령 훼방 죄의 차이는 무엇인가?

물론 모든 죄는 삼위일체 하나님께 범하는 죄입니다. 또한 모든 죄의 대가는 사망입니다. 그러나 독생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사람이 되시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과 저주와 지옥권세로 부터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구원받고 모든 죄를 용서함을 받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신자들도 육체의 연약함과 무지함으로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구원이 취소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구원받은 성도들의 신분이 이전에 하나님과 원수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대신 신자는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징계를 받습니다. 그때에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회개하는 자들을 용서해 주십니다.

4. 그러나 성령 훼방 죄는 그 은혜의 역사를 알면서 거부합니다.

이는 인생의 연약함 때문도, 무지 때문도 아닙니다.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계속적으로 오히려 조롱하며 모욕하는 것입니다. 마치 부모를 조롱하고, 때리는 폐륜아 같은 자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자들은 사형에 해당한다(출21:15-17; 신 27:16 등)하는 것처럼 성령 훼방 죄는 영혼의 사형선고를 받을 수밖에 없음을 선언합니다.

2) (마레시우스/ 헤페, «개혁파 정통교의학», 518)

3) (박형룡, 283)

4) (박형룡, 282)

5) (마레시우스/ 헤페, 518)

5.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도 성령 훼방 죄를 지을 수 있습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구원받은 자들은 성령 훼방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이는 성령이 내주하시는 구원받은 자의 당연한 반응입니다. 어떤 이는 ‘내가 성령 훼방 죄를 지은 것 아닌가?’하는 고민과 염려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체가 구원받은 성도의 반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령 훼방 죄를 짓는 자들은 양심이 확인 맞아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성령을 훼방하기 때문입니다.

적용

오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삶속에 적용하여 봅시다.

적용 1

→ 예수 믿는 참 신자들은 성령 훼방 죄를 짓지 않음으로 이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참으로 이단들이 횡횡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종말론을 잘못 이용하면서 여러 가지들로 성도들을 미혹합니다. 특별히 그들은 구원의 확신을 무너트리며 사람들을 두려움 속으로 몰아넣습니다. 그 두려움으로 성도들을 미혹하여 이단에 속하게 만듭니다. 또한 그 들안에 일어나는 것에 반기를 들면 “성령 훼방 죄”라고 하면서 비 진리에서 이탈하지 못하도록 붙잡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속지 마십시오. 그것은 성령 훼방 죄가 아닙니다. 막연한 두려움에서 벗어나십시오. 신자는 성령 훼방 죄를 짓지 않습니다.

(고전 12:3)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적용 2

→ 불신자들에 대한 전도함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 현재 불신자라고 해서 다 성령 훼방 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영적 무지로 인하여 예수님을 비난하고 욕하기도 합니다. 그들은 성령의 역사가 무엇인지도 알지도 못하고 분별도 못합니다. 그러므로 그들 중에는 나중에 믿고 회개하고 구원받은 자로 택한 받은 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적용 3

→ 성령 훼방 죄가 아닌 이상 성도에 대한 용서와 사랑을 철회하면 안 됩니다(눅 23:34; 요일 5:16).

- a. 교회 안에서는 여러 가지 갈등과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는 교회 구성원이 다른 네 부류에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는 믿음이 없는 종교인입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릅니다. 믿지 않습니다. 그저 종교생활을 할뿐입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와 부활의 복은은 계속적으로 선포되어야 합니다.
- b. 일시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입니다(마 13:5-6). 이러한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에서 말씀하신 것 같이 일시적으로 열심을 내고 은혜 받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려움과 고난을 이기지 못하여 혹은 자기 자신에 이익에 따라 신앙에서 이탈하고 고의적으로 버립니다. 이러한 사람은 구원의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가 아닌 은혜를 “맛보기”하였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그리고 절대로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은 성령 훼방 죄에 속할 수 있습니다.
- c. 미성숙한 그리스도인입니다(히 5:12-14; 고전 3:2). 이 분들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아직 성화되지 않아서 육체의 정욕에 이끌려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심지어 은혜가 많이 떨어졌을 때는 외적으로는 세상 사람과 방불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이들은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 d. 성숙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들은 말씀과 기도와 역경과 순경 등을 통해 연단 받아 예수님을 많이 닮은 자들입니다(엡 4:13; 히 5:14).

☛ 우리는 이 네 범주를 잘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명백한 성령 훼방 자가 아닌 이상, 우리는 성도들에 대한 사랑을 철회하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의 힘으로 권면하고 용서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적용 3

→ 우리 자신이 죄에 계속적으로 넘어진다고 하여도 성령 훼방 죄가 아닌 이상 용서받을 수 있음으로 절대로 신앙을 포기하거나 낙망하지 말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 성도들이 가장 자괴감에 빠질 때가 언제입니까? 받은 은혜를 상실하고, 죄를 짓되 똑같은 죄를 반복하여 지을 때 아닙니까? 그때 우리의 초라한 모습은 이루 말할 수 없으며 다가오는 비통함은 너무도 큼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도 죄송하며, 교회에 나오기도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주님과 교회와 멀어집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탄의 전략입니다. 우리는 죄를 범할수록 더욱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 나아와 회개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죄악을 이겨 나가야 합니다. 주님은 당신을 마침내 변화시키실 것이며,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하고 다시 일어나십시오! 다시 소망을 얻고 전진하십시오!

- ✓ 찬송(헌금시간): 502(빛의 사자들이여)
- ✓ 주기도문, 구역의 교제를 나눕니다.

나눔과 기도

구역원의 기도제목과 아래의 기도제목을 나누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한 후 인도자의 기도로 마칩니다.

- 부흥을 사모하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고 간절히 주님께 기도하며 철저히 회개하며 성령이 충만한 참된 부흥을 이루어지게 하소서
- 교회 평안과 안정을 더하시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몸 된 교회를 위해 우리 육체에 채우게 하소서 (골1:24)
- 복음으로 북한과의 통일과 민족, 인도 그리고 열방 복음화를 주시고, 이 큰일에 우리 교회를 제한 없이 사용하여 주소서!
- 여름 사역의 성령 충만과 안전 위하여(전교인 수련회, 중·고·청 수련회, 주일학교 여름 성경학교, 캠프 등)
- 당회장 목사님 성령 충만, 건강하게 하시고 모든 시험과 악으로 부터 보호하여 주소서.
- 영적 가족, 구역모임에 사랑이 더욱 넘치게 하소서
- 미혹하게 하는 이단의 세력에서 교회를 지키시고 모든 성도가 말씀 안에서 성화의 삶을 살게 하소서.